

#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 중심의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고찰

이은숙(순천향대학교)

## 〈목 차〉

1. 서론
2. 한국 문화 교육의 관점
3. 문화체험 방안과 의미
4. 결론

## 1. 서론

1959년 국내 한국어교육이 처음 시작되었다 하니 2009년 올해는 한국어교육 50주년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50년 동안 고르게 한국어교육이 신장되어 온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 한류 붐이 일면서 급작스럽게 팽창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심에 중국인 학습자의 증가가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내 학습자로 머물지 않고 한국으로 대거 쏟아져 들어와서 현재는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7만5천721명 중 78%를 차지하면서 6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sup>1)</sup>

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7만5천721명, 중국인 유학생은 5만9천100명으로 78%(2009.6월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이 같은 중국인 학습자의 증가에 힘입어 바야흐로 한국어교육은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유학생의 폭발적인 증가는 국내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 점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중 문화 교육의 방향이 중요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판단된다. 학습자의 학습 연륜의 깊이에 따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증가와 학문 목적 학습자의 증가 등은 언어 학습의 범주를 넘는 문화교육의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중섭은 1980년부터 2007년까지 발표된 한국 문화교육 관련 연구물 343편을 분석하였다. 연구물을 문화교육 일반론, 교육 내용 및 교수법, 교육 자료 등 세 가지 분야로 분류, 검토하고, 향후 연구를 위해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연구의 측면에서 제언을 하였다.<sup>2)</sup> 문화교육 연구는 대부분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는 관점에서 진행되었고, 향후 연구 방향성도 그렇게 설정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문화교육이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문화 피교육자를 거쳐 한국학자가 된 박노자의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학술적 차원의 한국문화교육은 한반도라는 한국 문화의 무대와 한국인이라는 한국 문화의 주인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의 인류학적, 세계사적 전후 관계와 다양하고 발전되어 가는 한국 문화 사실 자체의 연구를 동시에 중점적으로”<sup>3)</sup>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잇달아 출간되고 있는 문화교육 교재들은 말하기 영역을 강화하는 등 언어교육의 관점에서 있으면서도 내용에서는 문화교육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sup>4)</sup> 문화 항목을 읽기교재 형식으로 편찬한 또 다른 교재는 문화교육 내용을 더욱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강화한 교재들이다. <sup>5)</sup> 이들 4권의 교재는

2) 김중섭(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개정판 한국어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293~340면.

3) 박노자(2000), 「한국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1~72면.

4)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I·II, 보고서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화』, 한국문화사.

5) 박성현(2009), 『요약하며 읽어보는 한국, 한국인』, 아름다운한국어학교, 권영민 외 6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형식 면에서는 언어교재 특성을 보유하면서 내용 면에서 모두 문화 항목 중심으로 편찬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언어 교육과는 분리된 문화교육을 목표로 한 교재<sup>6)</sup>도 출간되었다. 이들 교재는 모두 언어 문화교육 분리론을 실제로는 넘어서고 있으며, 교실에서의 문화교육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실을 넘어선 문화 체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현장 체험 중심의 문화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영성한 편인데 주로 언어 문화 교육 통합론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었다.<sup>7)</sup> 문화체험 교육에서는 문화교육의 논의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과연 한국 문화교육은 체험교육에서도 언어 교육 통합론의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초점이다. 그러기 위해 문화연구의 관점과 사례연구의 방법론을 원용하기로 한다.

## 2. 한국 문화 교육의 관점

### 2.1. 문화교육의 관점과 내용

조동일은 한국문화교육의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부류를 들었다.

- 1) 외국의 한국학과
- 2)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 3) 외국에 이주한 한국인의 모국에서의 교육
- 4) 한국문화 교육을 담당한 한국인 교수 교사 양성
- 5) 국내 거주 외국인<sup>8)</sup>

---

6) 임경순(2009),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최운식 외 3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 한국인, 그리고 한국문화』, 보고서

7) 윤상철(2004), 「현장학습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논문

손다정(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현장 체험 중심의 문화 교재 개발 방안」, 『한국어교육』 2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 조동일(2009), 「다문화시대 한국문화교육의 방향」, 『한국문화교육학의 학문적 모색과 정립』,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년도 봄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9면.

본고는 이 중 2)항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을 말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나머지 네 부류에게 행해지는 한국문화 교육과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는 그 특성 내지 범주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 많은 논의에서 한국인의 정서 측면의 특성으로 ‘한’을 드는데, 한은 비장의 범주에 가까운 일면적인 것일 따름으로 다면적인 한국인의 정서로는 신명을 드는 것이 적절하다. 신명은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국민이 공유하지만 한국인에게서 특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예술행위나 철학사상에서 신명에 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특징이 있는 것<sup>9)</sup>으로 파악된다.

신명은 “깨어 있고 밝은 마음가짐이 힘차게 움직이는 상태”이고, 신명풀이는 신명을 각자의 주체성과 공동체의 유대의식을 가지고 발현하는 창조적인 행위이다.<sup>10)</sup> 또한 신명풀이는 다른 나라 연극과 구별되는 탈춤의 원리이면서 한국문화 전반의 특성이 된다. 삶의 활력을 얻고 보람된 창조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다.<sup>11)</sup>

한국 예술 미학의 특성이면서 한국 문화 전반의 공통된 특성으로 들 수 있는 ‘신명풀이’가 구현된 문화가 한국문화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한국 문화 교육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신명풀이는 한류의 구심점으로도 논의<sup>12)</sup>된 바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육에서도 오늘날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로 신명을 들고 있어서<sup>13)</sup> 이러한 관점이 수용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신명풀이는 미학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문화적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론적 관점이 요구된다. 그것은 바로 세계문화 속에서 갖는 한국문화의 위치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 문화는 세계문화의 한 부분이다. 한류는 세계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 한류는 추후 가능한 수많은 ‘~류’의 선두주자 격으로 세계에 비교적 먼저 알려진 문화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9) 조동일(2009), 위 논문, 16~18면.

10) 조동일(2009), 위 논문, 17면.

11) 조동일(2006), 「대중문화 만족 말고 고급문화로 나아가라」, 뉴스메이커, 2006.5.16.

12) 이은숙(2007),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 『한류와 한국어교육』, 박문각, 35~39면.

13)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화』, 한국문화사, 202~203면.

세계문화 속의 한 부분으로서의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은 지역학적인 관점이 유용하다. 지역학은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거나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타 지역을 연구하는 정책과학적 실천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의미가 축소되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인류의 공존을 위한 학문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 지역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를 반영해야 하는 지역학은 개별적인 지역 단위에 대한 통합적인 조망을 통해 그 지역 삶의 총체의 조직과 운용원리를 추출해내는 학문이 된다.<sup>15)</sup>

한류와 맞물리며 진행된 한국어교육의 확대는 경제적·문화적인 위상이 부상한 한국이라는 지역에 대한 관심에 기인한 바 크다. 이점은 한류의 최대 수용 지역인 중국 및 베트남, 몽골 등에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다는 점으로도 입증된다. 즉 한국이라는 지역에 대한 지역학적 관심의 증대와 한국어교육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지역학의 범위는 각 지역의 한 부분에서 세계 대륙까지 다양하다.<sup>16)</sup> 국가를 연구 단위로 할 때는 ‘해외지역연구’<sup>17)</sup>와 지방을 연구 단위로 했을 때는 ‘지방학’<sup>18)</sup>과 각각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중 외국어 교육과 관련 있는 것은 ‘해외지역연구’와 대응되는 지역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외국어 학습에서 지역학의 개념은 Buttjes의 “외국어 수업에서 배우는 언어에 해당하는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든가 Dressler의 “지역학은 학습자가 낯선 외국문화와 사회에서의 특정한 생활조건과 행동양식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한 학습자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19)</sup> 등과 같이 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해외지역연구의 관점 속에서 설정되고 있다.

14) 이은숙(2007), 「‘한류’ 용어의 타당성」, 『한류와 한국어교육』, 박문각

15) 이상 지역학 논의는 아래 논문 참조.  
노명환 (1999), 「지역학의 개념과 방법론 -일상생활문화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6) 이춘근(2005), 「대구경북학의 연구방법론 서설」 『21세기 대구경북학,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센터, 16차 21세기낙동포럼, 2005년 6월 14일

17) 이진(1999), 「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해외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8) 조동일(2005) 「우리고장 학문의 사명과 진로」, 『21세기 대구경북학,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센터, 16차 21세기낙동포럼, 2005년 6월 14일

19) 「독일어 수업과 지역학적 요소」 (유경덕(2003), 동국대학원 석사논문) 4면에서 재인용

독일어 교육의 경우 이러한 측면이 교육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학과명을 ‘독일학과’로 바꾸거나 지역 사정 교육과 관련된 교과과정 편성을 늘리는 등 수업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sup>20)</sup> 이 점은 외국에 개설된 한국어과에서도 역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의 한국어 학습 또한 한국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다양한 교류의 장을 확대하려는 한국이라는 지역에 대한 관심의 표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sup>21)</sup> 따라서 문화교육에서도 이러한 학습자의 지역학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 2.2. 문화 교육 통합론과 분리론

박노자는 땅이 비좁은데도 한국만큼 다양하고 다원적인 많은 전통들을 융화시킨 문화복합체는 드물 것이라고 했다. 그 고도의 다양성과 함께 한국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부단한 내재적 발전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다.<sup>22)</sup>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한국문화에 대해 제시한 것이다.

중국 한국어과에서는 대부분 ‘한국개황’이라는 과목을 설정하고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과목이 설정된 이유는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목표가 “중국 사회가 필요로 하고 중·한 교류가 필요로 하는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한국학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분야의 인력”이기 때문이다.<sup>23)</sup>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교재가 출간되었는데 서론에서 제시한 임경순(2009), 최운식의 3인(2009) 등의 교재가 그것이다.<sup>24)</sup> 이 교재는 외국인이 배워야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 혹은 지역에 관한 개론서로서 언

20) 유경덕(2003), 「독일어 수업과 지역학적 요소」, 동국대대학원 석사논문, 3면

21) 이선희(2003),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6면

22) 박노자(2000), “한국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9~70면

23) 이해영 외 5인(2006),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 사회 문화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 17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1면.

24) 임경순(2009),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최운식 외 3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 한국인, 그리고 한국문화』, 보고서

어 교육과는 분리된 문화교육 자체를 위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 문화 교육을 논하는 관점은 주로 언어교육의 일환으로서다.<sup>25)</sup> “문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언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언어 통합교육과 언어 분리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26)</sup>는 성기철의 관점은 국내 언어 통합론의 관점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즉 한국 문화 교육의 목표는 문화 자체의 교육이나 습득에 두기보다 한국어 신장, 즉 목표 언어 능력의 신장에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언어 능력의 신장에 도움이 되는 한국 문화 요소들을 선별하고 추출하여 가르치는 데에 두는 것이다.<sup>27)</sup>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통합론과 분리론의 관점을 접합시킨 교재들이 연이어 출간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우선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I·II와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화』<sup>28)</sup>를 보자. 이 책은 각각 중급학습자와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문화 내용을 주제로 한 말하기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상 학습자군의 정밀한 언어 등급별 구분이 없으며, 문법 설명이 없고 문화 항목 이해를 중시하고 있고, 특히 후자의 경우는 장문의 읽기 지문 제시를 통해 문화 자체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손다정은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2008)가 가진 특성, 즉 통합론의 관점

---

25) 대부분의 문화교육 연구가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제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항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조항록·강승혜(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 요목의 개발(1)」,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항록(2004),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박영순(2006), 「한국어교육과정과 교수요목으로서의 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황인교(2009),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국제학술대회자료집,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6)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2면.

27) 이해영 외 5인(2006), 위 논문, 213면

28)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I·II, 보고서.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화』, 한국문화사.

에서 있지만 문화적 요소를 중시하고 있는 관점을 분석해서 보여준다.<sup>29)</sup> 그러나 실제로 매번 현장학습과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체험을 하지 못하면 수업이 공허할 수 있다는 문제는 과제로 남는다.

다음 위 책보다 더 문화 교육 쪽으로 축을 이동한 교재가 있는데, 박성현(2009)의 『요약하며 읽어보는 한국, 한국인』과 권영민 외 6인(2009)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sup>30)</sup>가 그것이다. 둘 다 고급학습자의 읽기자료로 편찬된 교재로서 소상한 어휘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전자는 문형 및 표현 항목을 제시하여 한국어 교재로서 특성이 더 강화되어 있다. 이들 4권의 교재는 한국어교재로서의 형식적 특성을 보유하면서 모두 문화 항목 중심 내용으로 편찬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교재는 기본적으로는 통합론의 관점을 취하지만 한국문화 교육의 본질을 수용하여 통합론이 갖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넘어서고 있다. 문화교육 연구보다 현장 교육이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용 교재를 거쳐 위에서 논의한 임경순(2009), 최운식의 3인(2009)의 교재에 이르면 한국학 학습자로서의 기초 문화교육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론의 문제가 위와 같은 몇 권의 교재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학과 연계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에서 통합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반면 연구에서는 통합론의 관점을 넘어서는 시도를 접하기 어렵다. 그 점은 언어교육원 학습자를 주요 대상 학습자 군으로 상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어교육 차원에서는 문화를 언어 통합론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많은 대학이 본과에 진입한 학습자군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한국어 교육, 혹은 외국인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sup>31)</sup>

그런데 언어교육원을 넘어 본과나 대학원에 진입한 유학생을 통합적으로

29) 손다정(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현장 체험 중심의 문화 교재 개발 방안”, 『한국어교육』 2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0) 박성현(2009), 『요약하며 읽어보는 한국, 한국인』, 아름다운한국어학교, 권영민 외 6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31) 순천향대학교도 2009년 2학기부터 상경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연한국어> 수업을 시작하였다.

관리 교육하는 구심점을 대학 교육제도 안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오히려 한국 안에서 공부하면서도 <한국개황>을 공부하는 중국 현지 학생들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교육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한편으로 각국 한국어 교육을 통괄해야 하는 한국어교육의 종주국으로서 언어교육 통합론의 관점으로 한국 문화교육에 접근하게 되면 한국 문화교육의 본산 역할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2.3. 문화교육 대상자

위에서 한국 문화 교육은 통합론의 관점보다 상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과 그것은 지역학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했다. 그리고 문화교육의 내용은 신명풀이 구현이 되어야 할 것도 같이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조동일이 논의한 한국 문화교육의 5가지 대상에 대한 교육도 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외국어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변인에 따라 ① 단순히 목표어의 어학적 능력을 추구하는 기능형 과정 ② 심화된 목표어의 연구를 추구하는 지식형 과정 ③ 목표어를 통해 여러 종류의 업종과 다른 학문을 추구하는 연계 지식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sup>32)</sup> 이 점을 필자는 언어 관련 문화교육이라는 협의의 문화교육과 한국 문화 자체의 교육을 말하는 광의의 문화교육으로 구분하여 논의한 바 있다.<sup>33)</sup> 즉 전자는 언어 교육에 초점이 놓이고, 후자는 문화교육 자체에 초점이 놓일 것이다. 성기철이 말한 “언어 통합교육과 언어 분리방법”은 각각 필자가 말한 전자와 후자에 대응될 것이다. 즉 한국 문화교육은 이 모든 과정에서도 요구되는 문화교육, 즉 총체적인 한국 이해 교육의 구현이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 전제를 다시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의 문화체험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실활동과의 강한 연계성은 확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문화교육의 거시적인 틀 속에서 문화교육의 위와 같은 방향성을 구현하는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재한 학습

32) 인문사회연구회(2002), 『대학에서의 외국어문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희(2003) 157면에서 재인용.

33) 이은숙(2009), 「한국어 학습자 문화체험 교육의 사례 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의 방향』, 2009 순천향대학교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09.2.20.

자로서 조동일 분류에서 2부류의 학습자들이 해당된다.

한국어 학습자는 최근 일본 학습자 중심에서 중국 학습자 중심으로 그 축을 완전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Y대학 어학원의 경우 1998년의 학습자 국적 비율은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순이었다. 2001년에는 중국이 2위로 올라섰고 이후 일본인 학습자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다.<sup>34)</sup> 지금은 중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중 78%를 차지하는 1위 학습자 군이 되었다. 참고로 본 대학의 경우 2009년 1학기 한국어 학습자가 35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 중 한국어 학습자는 300명 정도로 85%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 학습자의 높은 비율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문화교육에서도 이들 중국 학습자의 요구가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 학습자들의 문화교육 관련 요구는 중일 유학생 비교 연구<sup>35)</sup>가 있어 많이 참고가 된다. 이 연구 또한 통합론의 관점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대 학습자군의 요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많은 참고가 된다.

이 연구 분석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국 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 요구가 중일 학습자 모두 높다지만 중국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이다. 문화 교육의 학습 유형으로 가장 중시한 것은 중국 학습자의 경우 현장학습, 문화행사 등이었다.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활동으로도 일본 학습자보다 더 많이 문화행사 참여가 많은 도움을 준다고 꼽았다. 한국 문화 체험 학습으로는 유명한 관광지 답사 요구가 중일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히 중국 학습자는 문화행사와 현장학습 요구가 높고 그중 유명 관광지 답사 요구가 높으며, 한국 현대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이 본고와 관련된 유의미한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개괄적인 요구를 염두에 두면서 학습 방법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34) 강승혜(2003), 「한국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요구분석-일본 학습자 집단과 중국 학습자 집단의 비교」,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9면.

35) 강승혜(2003), 위 논문.

### 3. 문화체험 방안과 의미

#### 3.1. 문화체험의 구체 방안

현장학습을 통한 문화교육 방법의 연구는 윤상철의 연구가 많은 참고가 된다.<sup>36)</sup> 윤상철은 현장학습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임을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학습의 의의는 학습자들이 교실 상황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실제 목표 사회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윤상철은 또 현장학습의 개념을 정리하였는데 ‘현지학습’을 상위 개념으로 보고 현장견학, 체험학습, 현장학습을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현장견학’은 특별한 문화적 함의를 갖는 곳을 방문하는 것, ‘체험학습’은 문화요소 포함 현장을 방문하여 전통 음식 만들기 등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는 것, ‘현장학습’은 문화 요소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적 의사소통 연습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37)</sup> 모두 교실 수업과의 연계라는 전제 속에서 범주를 설정하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체험’이나 ‘현장체험’이라는 용어는 교실과의 연계보다 문화 교육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험’은 범박하게 목표 문화에 노출되어 경험하게 되는 일체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문화)현장 체험’은 교육 공간을 이동하여 현장 문화를 경험하는, 현장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자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고 후자의 의미는 교육 용어로 쓰이려면 ‘생활 현장 체험’, ‘삶의 현장 체험’ 등 생활 용어와의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박하게 문화를 체험한다는 의미, 문화 현장의 체험을 중시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적절한 용어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화체험’이나 ‘(문화)현장체험’의 용어를 쓰기로 한다. 문화교육을 위해서 문화 현장 체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기 때문이다.

36) 윤상철(2004), 「현장학습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37) 윤상철(2004), 위 논문, 16~17면.

윤상철은 현장학습의 운영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38)</sup>

①단원목표 제시 → ②사전조사/ 사전 정보 제공/조편성 → ③현장과제 수행 → ④교실 수행 → ⑤정리 및 마무리

이것은 교실수업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는 학습 방안이다. 교실과의 연계에서 좀 자유롭다면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사전 설명회 → ②문화체험(전문해설사 설명) / 체험학습 병행 → ③퀴즈 → ④설문조사 → ⑤작문/사진전 및 시상 → ⑥ 문화체험자료집 작성

이 모델은 순천향대에서 실시하는 문화체험 방식이다. 문화체험은 매 쿼터 당 5회 정도, 개인별 체험 기준으로는 2회 내지 3회 정도가 진행된다.

① 사전 설명회는 쿼터 당 한 번에 하는 합동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영상 자료가 사용되고, 각각 담당 선생님이 진행하므로 대상 지역과 담당 교사에 따라서 한국어의 사용 정도, 혹은 통역 유무 등 내용과 형식상의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합동설명회이므로 대상 지역들 간의 문화 비교도 가능하여 참여 지역이 다른 지역과 견주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합동 설명회는 1차적으로 문화체험 대상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여 체험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상지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제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을 촉발하는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파악된다.

② 문화체험 진행 과정에서는 현지 상황에 따라 전문 해설사의 설명 혹은 교사의 설명이 진행되며 체험학습이 병행되기도 한다. 한국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므로 문화체험 과정에서 한국학생과의 교류도 이루어진다. 이때

38) 윤상철(2004), 위 논문, 55면

한국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국제적인 체험을 위해서 혹은 외국 학생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학생들로 구성하여 이 행사가 한중 교류의 장이 되며 한국어 활용의 실제적인 학습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장소 이동 중 주로 차 안에서 현지 체험 목표 문화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진행하며 참여를 고무하기 위해서 상품을 마련, 정답을 제시한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 퀴즈는 일단 목표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공유하게 해서 문화체험의 의미를 높이며 이후 문화체험을 보다 깊이 있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 또 퀴즈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성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때로는 학습 분위기에 부담감을 갖는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퀴즈 담당 교사에게도 목표 문화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체험으로 유도한다. 또한 퀴즈는 언어교육과 매우 밀착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에 대한 막연한 이해가 아닌 한국어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체험임을 인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고 과정이 필요한 질문이나 장형의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은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④ 학교로 돌아와서는 대개 일주일 이내에 해당 문화체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다. 문제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 다음 체험 때 반영하며, 학생들에게 체험 희망 지역을 물어 대상지 선정에도 참고한다.

⑤ 체험 종료 후에는 작문과 사진을 참여 학생에게 전체적으로 요청한다. 작문의 경우는 한 쿼터에 한 번 우수자 시상을 하며, 사진의 경우에는 종이 사진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 설명회 자료나 수료식 관련 동영상물로 활용하여 다시 한 번 체험 지역과 문화에 대해 반추하게 하고,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한국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⑥ 이후 이 모든 과정을 집약한 문화체험 자료집을 작성한다. 이 자료집을 위해서 문화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한다. 설명회 자료 및 학생들의 작문과 사진, 인터뷰 기사 및 설문조사 및 그 결과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료집 작성과정은 문화체험의 결산과 같은 작업이 된다.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체험 후 과정 이외에도 이 체험은 공동의 체험이므로 해당 교사에 따라 다양하게 수업과 연계될 수 있다. 공동의 화젯거리를 마련한 셈이므로 토론 수업이나 쓰기 수업에서는 주요 주제로 삼아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통합론의 입장에서 제시한 문화교육의 방안과 비교할 때, 설명회에서부터 교사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학습자의 역할이 약화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설명회를 학습자가 준비하기는 어려우므로 고급 학습자로 하여금 초중급 학습자를 위해 통역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언어학습의 약점을 보완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통합론적 관점의 이러한 현장학습은 교사가 개별적으로 전과정을 준비하여야 할 때가 많아서 물리적인 노력이 과도해지기 쉽고 이에 비례하는 학습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시행되는 현장학습을 조사해본 결과 수동적인 견학 수준, 교실 학습과의 유리 현상, 인솔자 1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 현장학습지의 신선도 결여 등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sup>39)</sup>

이에 비해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방안은 언어학습과의 밀착성 약화의 측면을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광의의 문화체험으로서 나름의 효율성과 한국 문화 이해라는 거시적인 학습 효과가 상당부분 강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3.2. 문화체험의 의미

이와 같은 문화체험 방식에 대해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정규 과정과 별도로 진행되는 문화체험은 학습 외적인 효과도 높다. 일단 최소한의 경비만 납부하고 참여하는 체험이 단조로운 정규 수업 과정을 보완하여 수업에 활기를 주며, 인터넷이나 게임으로 소일하기 쉬운 무료한 주말 생활을 건전한 학습으로 대체하게 되므로 생활 관리의 효과도 가져온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체계적으로 구성된 문화체험에의 참여로 목표 학습 대상인 한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인다는 점이다. 문화체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대개 ①인근지역 우선 ②단계별 전국 진행 ③지역 축제 참여 ④학습자의 희망 지역 ⑤ 체험 주제별 안배 ⑥ 정보 확보 용이 지역 등등<sup>40)</sup>이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역의 역사 문화에 기초한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지역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sup>41)</sup> 최근 지역학의 경향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

39) 윤상철(2004) 위의 논문, 61면.

40) 이은숙(2009), 위의 논문, 30면.

역 축제 연계, 지역성 강화, 현대성 강화, 다양한 종교문화 체험, 자연 친화적 체험 등의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체험 대상 선정 기준을 종합해 논의하면 지역학적인 관점과 신명풀이의 내용, 두 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즉 주변 지역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대되는 지역의 공간적 이해와 신구문화를 통시적으로 연계하는 신명풀이에의 참여가 그것이다. <비보이>, <난타> 등의 공연을 위시하여 한류의 중심인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신명풀이의 체험을 구현할 수 있다. 지역학적 기준은 지역학적인 방법론으로 지역학의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라 하겠다.

- 1) 지역학적 이해 대상 : 지역축제, 인근 지역 문화, 자연 친화적 체험 등등
- 2) 신명풀이 참여 대상 : 역사 종교 문화, 공연 문화, 현대적 의미가 강조된 기타 문화 등등

박영순은 문화교육의 내용으로 아홉 가지를 제시했는데<sup>42)</sup>, 위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대강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1) 지역학적 이해 대상 : 제도문화, 학문, 산업기술, 문화재
- 2) 신명풀이 참여 대상 : 역사, 예술문화, 정신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

그러나 위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처럼 선명하게 분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정신문화나 생활 문화,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도 지역학적 관점으로 교차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해의 대상인지 감상이나 감동의 대상인지에 따라서, 혹은 그 비중에 따라서 나누어야 할 것이다. 지역학적 이해의 대상도 감상의 대상으로 동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9년 봄에 'KBS <열린음악회>와 봉은사' 문화체험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5명의 응답자 중 열린음악회가 더 좋다는 응답자는 20명(57%), 봉은사

---

41) 한기범(2005), 「지방화시대 지역학의 동향과 인문학적 과제」, 『21세기 대구경북학, 어떻게 할 것인가?』, 16차 21세기낙동포럼 자료집,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센터, 2005년 6월 14일

42) 박영순(2006),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가 더 좋다는 응답자는 3명(9%)으로 나타났다. 지역학과 신명풀이 중 신명풀이를 이해 혹은 학습과 놀이의 관점으로 보면, 놀이를 더 선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역학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의 흥미로운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물관에 가면 이해의 축에서만 접근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저항이 있어서 문화체험 진행이 수월하지 않다. 과천미술관을 가장 재미없는 곳으로 꼽은 것도 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험은 교실 학습이 아니다. 교실 밖에서 정규 수업의 변화와 일탈을 기대하면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신명풀이 체험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학과 신명풀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문화체험이 학습과 놀이 요구를 다 충족시켜주면서 체험의 의미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부여 지방 유적 답사와 보령머드 축제 연계 문화체험(209.7.17)은 지역학적 관점과 신명풀이의 체험이 고루 반영되어 학습효과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학습자들은 신바람이 나서 체험에 참여하는 등 대단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서울 선유도공원과 <난타>공연 공동 체험 또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학습자들(200명)은 가장 즐거웠던 곳으로 165명(83%)이 <난타> 공연을, 24명(12%)은 선유도 공원을 들었고, 향후 개선점에 대해서도 응답자(126명) 대부분이 없다(90명)거나 더 많은 체험이 필요하다(14명)고 답했다.

2008년 경주 지역 문화체험 후, 서울 선유도 공원 및 <난타> 공연 체험 후, 제주도 체험 후 향후 가보고 싶은 체험지를 물었을 때, 가장 선호하였던 곳이 서울, 제주도, 부산, 놀이동산, 강원도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워낙 복합적인 면모를 가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이므로 당연히 높이 선호할 것이고, 부산 또한 대동소이한 이유로 선호할 것이라 추측된다.

이중 제주도는 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제주도 체험 후 실시한 설문조사(22명 참가)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놀랍게도 테디베어박물관(11명)과 성산일출봉(9명), 바다(7명)로 나타났다. 성산일출봉도 바다이므로 바다가 좋았다는 사람이 18명이나 되는 셈이다. 중국과 몽골 학생들의 바다 선호는 거의 탐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자연친화적 체험으로 한국의 자연이 그대로 체화되는 것으로 보였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테디베어 박물관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것인데, 고유의 지방색보다 현대적이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우선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문화체험에서 꼭 추구해야 할 지표는 아닐 것이다. 놀이에 중점을 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독살체험과 안면도 꽃박람회’(2009.4.28.)의 경우는 응답자 94명 중 53명(56%)만이 70%이상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이해와 놀이가 고루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원 화성행궁과 축구관람’(2009.5.10)을 보고 학습자들(37명)중 28명(76%)이 70%이상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물론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이 두 사례를 보면 지역학적 이해와 신명풀이 체험이 고루 반영되는 경우가 실제 만족도도 높으면서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독살체험과 안면도 꽃박람회’(2009.4.28.)의 경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한국문화 이해(31명, 33%)와 스트레스 해소(47명, 50%)라고 답했다. ‘KBS <열린음악회>와 봉은사’ 체험 후의 질문에서는 한국 문화 이해(20명, 57%)와 스트레스 해소(10명, 33%)에 도움이 되었다고 각각 응답하였다. 학습자가 이해나 감상의 객체가 아닌 참여의 주체가 되어서 문화체험 그 자체가 신명풀이가 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학습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학습이 되는 이상적인 체험이 가능할 것이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언어학습과의 통합론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문화교육과 연구의 한계를 말하고 통합론과 분리론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화교육론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바로 지역학적 관점과 신명풀이 미학 수용 형태로 시행되는 문화체험 교육이다. 지역학적 관점을 통하여 문화의 공간적인 이해를, 신명풀이 참여를 통해 문화의 통시적인 접근을 말했고, 이는 각각 학습과 놀이에 대응됨을 말했다. 또한 문화체험의 구체적 진행방안은 본고의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문화체험은 이 두 관점이 적절히 조화되었을 때 학습자 만족도와 체험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했다.

중국 학습자들의 특징은 대부분 전공 진입을 목표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점은 일본 학습자와 대조되는 점인데 일본 학습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학습 목적이 되고 있으나 중국 학습자는 ‘대학(원) 진학’이 학습 목적이 되고 있다.<sup>43)</sup> 본교의 경우도 중국 유학생은 99%가 본교 신입입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이 한국 학습의 목표가 아니고 한국어 학습 이후가 한국 학습의 목표가 된다. 범박하게는 한국학 연구가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론적 관점은 이들이 갖는 한국 학습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한국학의 기초 학습으로서의 의미도 축소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실과의 강한 연계를 갖는 수업보다 문화체험 자체가 목적이 되는 한국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대안으로서 지역학과 신명풀이를 말했다. 박노자의 견해는 그중 지역학의 내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실 안에서의 문화교육이 아닌 현장 체험으로서의 문화교육을 논했다. 그러기 위해 신명풀이 체험을 또 하나의 준거로 논의했다.

실제로 시행되는 문화체험을 대략 이 두 관점에서 분류하여 그 성취도를 파악하면 향후 진전된 문화체험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을 실제로 적용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관점이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이제부터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체험 후 실시되는 설문 조사에서 두 가지 관점의 실현성 여부를 묻는 항목 설정 등은 바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3) 강승혜(2003) 위의 논문, 15면

## 〈참고 문헌〉

- 강승혜(2003), 「한국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요구분석 -일본 학습자 집단과 중국 학습자 집단의 비교」,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권영민 외 6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아름다운한국어학교
- 김중섭(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개정판 한국어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센터, 『21세기 대구경북학, 어떻게 할 것인가?』, 16차 21세기낙동포럼자료집, 2005년 6월 14일
- 박노자(2000), 「한국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성현(2009), 『요약하며 읽어보는 한국, 한국인』, 아름다운한국어학교
- 박영순(2006),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손다정(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현장 체험 중심의 문화 교재 개발 방안」, 『한국어교육』 2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유경덕(2003), 「독일어 수업과 지역학적 요소」, 동국대대학원 석사논문
- 윤상철(2004), 「현장학습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선희(2003),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현대문화』, 한국문화사
- 이은숙(2007), 『한류와 한국어교육』, 박문각
- 이은숙(2009), 「한국어 학습자 문화체험 교육의 사례 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의 방향』, 2009순천향대학교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09.2.20.
- 이해영 외 5인(2006),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 사회 문화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 17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임경순(2009),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조동일(2009), 「다문화시대 한국문화교육의 방향」, 『한국문화교육학의 학문적 모색과 정립』,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년 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세종대
-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제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 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2004),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항록·강승혜(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 요목의 개발(1)」,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최운식의 3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 한국인, 그리고 한국문화』, 보고서
- 황인교(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국제학술대회자료집,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

## 【국문 초록】

한국어교육의 연륜에 따라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는 심화되고 있는데, 문화 교육의 연구는 언어교육의 보조 선상에서 진행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문화는 미학적인 차원에서는 ‘신명풀이’로, 문화 교육은 세계문화 속의 한 지류로서 지역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에서 한국어교육은 주로 언어교육원 안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학 교육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교육은 언어교육과의 통합론의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는 언어교육과의 통합론이나 분리론의 관점을 넘어서는 상위의 개념, 즉 한국이라는 지역학에 대한 요구 및 신명풀이 미학의 수용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본고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관심을 문화체험이라는 방법론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문화체험의 방법론으로서는 6단계의 과정을 제시하였고, 체험지 선정기준에서도 지역학적 요구와 신명풀이 미학의 실현이라는 두 요구 구현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표가 대부분 언어 학습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학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면 이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문화체험 교육의 의미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국문 핵심어: 문화체험, 한국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지역학, 신명풀이

【Abstracts】

## Culture experience oriented Korean culture education plans study for Foreigners

Lee, Eun-Sook

Though Korean language education develops as the time passes, the study of culture education can not respond to the demand because it went off as the subsidiary study of the language education.

Korean culture should approached as 'Shinmyeongpulyi' from an aesthetic point of view, and the culture education should approached as a branch of world culture from an area study's point of view. Korean language education can not directly linked with Koreanology education, so culture education has been studied from an tactics point of view. However, the demands of the students to culture education is a upper notion of the perspective of tactics or divisibility with language education, which is in the demands to Korean area study and the accept of 'Shinmyeongpulyi' aesthetics. This article is a study to interest of the both perspectives, and accept them with a culture experience methodology. As a culture experience methodology, this manuscript has suggested 6 levels of process, and in the selection of experience area, it has also suggested fulfill of two demands, which are demands of area study and realization of 'Shinmyeongpulyi' aesthetics. As we consider the situation Korean language learners would not just satisfied with learning language, but develop their desires to the

demands of Koreanology, the meaning of culture experience with these two perspectives oriented will be wider.

key words: culture experience, Korean cultur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a study, Shimmyeongpulyi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